

출판시장에서의 AI 수용 양상 연구

이구용*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AI와 출판시장
 - 2.1 AI 출현과 출판시장의 변화
 - 2.2 출판시장에서의 AI 활용 사례분석
 - 2.3 AI 창작·번역과 법적·윤리적 쟁점
3. 나가는 글

[국문초록]

본 논문은 생성형 AI 역할 확대에 따른 출판콘텐츠 생태계 변화로 인해 국내외 출판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이슈를 점검한다. 특히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통한 창작과 번역은 물론, 출판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수용 양상을 점검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그를 위해 국내외 출판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관련 현황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용성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대안과 비전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과 번역에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산업적 효과가 있는 반면, 창작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연적 과제가 부상하고 있는 만큼 창작·번역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쟁점과 대응의 필요성을 고취시킨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생성형 AI 관련하여 국내외 출판시장이 당면한 현안을 신속히 분석·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과 비전을 적기에 제시함으로써 한국문학과 한국출판저작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문학·출판계 종사자들에게 세계출판시장에 시의성 있게 대응할 통찰력을 제공한다.

주제어 : 세계출판시장, 생성형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활용 창작과 번역, 출판시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한국문학 수출, 한국출판, 챗GPT

1. 들어가는 글

‘기술복제’ 시대에 예술작품과 그것의 ‘현존성’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논할 때 벤야민(Walter Benjamin)을 종종 소환한다. “아무리 완벽한 복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가지 요소가 빠져 있다. 그 요소는 시간과 공간에서 예술작품이 갖는 유일무이한 현존성, 다시 말해 예술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예술작품이 지니는 일회적 현존성이다.”¹⁾ 그러면서 벤야민은 복제가 지닐 수 없는 ‘아우라(Aura)’에 대해 역설한다. 그러나 복제를 통한 대량생산이 일상화된 지 오래고, 예술복제라는 환경이 낯설지 않은 시대를 이미 관통했고, 이제는 복제를 넘어 또 다른 차원의 ‘혁명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통한 ‘창작’과 ‘생산’이 자유로워진 시대가 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개성을 지닌 아우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본격적인 등장과 그것의 깊숙한 일상으로의 개입을 통해 문학을 비롯한 출판콘텐츠 생태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그것의 수용 양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면성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동반자로서의 생성형 AI와 시대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응 방안과 비전 모색을 통해 한국출판저작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의 유용성을 점검하는 데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생성형 AI의 끊임없는 진화·발전은 출판콘텐츠의 창작·생산은 물론, 그것의 번역에 이르기까지 출판 환경 전체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 그 영역은 텍스트는 기본이고, 인간의 음성, 이미지, 영상, 그리고 음악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그림책과 일반 문학서적은 물론이고, 그들 각각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그리고 웹소설과 웹툰 등 웹콘텐츠의 생산과 제작에 이르기까지 큰 반경을 그린다. 금속활자, 인쇄기 발명,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출판혁명’에 이어, 이제는 그보다 한층 더 진화된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판

1)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0, 200면.

단'하는 상황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런 출판산업 현장에서 생성형 AI와 창작·번역이라는 핵심 프로세스는 불가피하게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런 환경에서 생성형 AI 관련하여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통한 작업과 그 결과물에 나타난 통·번역 관점에서의 역할과 한계 분석, 인간 번역자의 번역과 인공지능 번역기의 번역 결과물 간에 나타나는 차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출판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는 인공지능 번역 역할의 유용성, 그리고 초기 단계로서 생성형 AI가 가져온 출판시장의 변화와 쟁점 등에 관한 연구 등이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통한 창작과 번역은 물론, 출판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 수용 양상과 이를 둘러싼 현황을 점검하여 거기서 나타나는 쟁점을 살펴, 향후 대응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차적인 목적이다.

상술한 일차·이차적 연구 목적을 위해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출판시장에서 2024년 상반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점검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역할에 대한 유용론을 기본적으로 견지한 가운데 출판산업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살핌으로써 거기에 나타난 의미와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충돌과 갈등의 사례를 함께 조명하여 출판계가 당면한 현재는 물론 앞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대안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것이 시장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것의 수용이 연구자의 검토와 분석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한 연구·분석 정보가 어느 시점까지 유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기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분야와 달리 출판 분야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생성형 AI와 출판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는 의견이 뒷받침하고 있듯이 출판의 발전적 방향과 미래를 위해 출판시장에

2) 이승환, 「생성형 AI가 출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9권 2호(통권 111호), 한국출판학회, 2023, 86면. 원문에서 ‘본격적으로’가 반복되어 본 연구자가 괄호 표기함.

서 나타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성형 AI는 창작과 번역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산업적 맥락에서 일정 부분 기여 효과를 내고 있는 반면, 인간 창작자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필연적 당면과제를 남기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쟁점과 그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시장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신속히 분석·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창작자와 산업계가 갈등과 대립이라는 견제구조가 아닌 이해와 협력의 동반자로 동행해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모두에게 시의성 있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찰력 제공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2. 생성형 AI와 출판시장

2.1 생성형 AI 출현과 출판시장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을 이끈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인간의 일상과 산업은 지능화와 자동화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바로 그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나온 지 10년도 채 안 되는 2024년 현재, ‘5차 산업혁명’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 배경의 중심에 인공지능 챗GPT가 자리한다. “5차 산업혁명은 AI를 매개로 현실과 가상, 아날로그와 디지털 경계가 무너지는 혁신을 의미”³⁾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행·처리하는 기능이나 도구로서의 역할 영역을 뛰어넘어, 이제는 혼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로서 인간과 협력하는 단계로의 지위 격상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등장과 그것의 활용에 따라 출판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 확보 기반에서 새로운 정보를

3) 김지현, 「AI는 인간과 협업하는 능동적 파트너」, 『주간동아』 1436호, 2024, 22-23면.

생성해 내는 인공지능이 바로 생성형 AI이다.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출·분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결괏값을 제공하는 분석형 AI와는 차이가 있다.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확보한 후 분류·예측·진단을 하는 분석형 AI와 달리, 생성형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한 학습 과정을 거쳐 텍스트 간 관계를 파악·분석하여 명령된 내용을 골격으로 창작하고, 번역하고, 요약함은 물론 창의적인 결괏값을 생산해 낸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생산은 물론이고, 이미지와 음성까지도 생성해 낸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분량의 학습기반에서 문예창작, 일러스트 작업, 그리고 오디오 작업을 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시와 소설을 창작하고 어린이 그림책과 만화(웹툰)를 생산하고, 디지털북의 카테고리에 속한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능자’로 ‘레벨업’ 되어 등장하였다.

결국 생성형 AI는 창작에서 제작까지 출판 전 과정을 아우르는 ‘유능한 역할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인력과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출판시장이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선택이다. 챗GPT(ChatGPT)와 미드저니(Midjourney)를 대표로 하는 생성형 AI가 책을 쓰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생성형 AI가 일부, 혹은 전체를 쓴 책들이 온라인 서점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아마존닷컴의 킨들 전자책 스토어에는 1천 종이 넘는 책이 등록”⁴⁾되어 있는 상황이다. 생성형 AI는 편집능력이 훌륭해 저자의 창작물 원고를 편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시켜주고, 텍스트 분석을 제공하여 출판시장에서 조화를 이뤄 불특정 독자들에게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주제를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출판사에게는 독자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여 그들의 성향과 요구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자사의 도서를 프로모션·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단계에 와 있다.

공병훈은 ‘출판 창작과 저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챗GPT를 저자⁵⁾로 하여 출간된 종이책 사례(예스24, 2023년

4) 류영호, 「한국 출판 시장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K-Book Trends』, VOL.65, 2023. 12.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본 자료에 면 수가 표기되지 않아 본 출처 표기에도 면수를 생략함.)

10월 11일 기준)를 들면서, 당시 기준으로, “종이책은 17종, 전자책은 802종에 이르며, 조사된 사례들은 챗GPT가 공저자로 등록되어 있었다”⁶⁾고 하였다. 전자책이 종이책 버전에 비해 출간된 종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책의 경우, ‘소설·시·희곡’ 분야가 3종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계발’서 분야가 2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자책의 경우엔 802종 중 ‘자기계발’서 분야가 378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경영’, ‘인문’, 그리고 ‘건강·취미·여행’분야가 각각 95종·94종·94종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나타난 것으로, 17종의 종이책 중에서 챗GPT가 단독 저자인 경우는 영진닷컴이 2023년 4월에 출간한 『챗GPT가 추천하는 술과 안주의 페어링: 지극히 과학적인 환상의 페어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병훈의 글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자책 802종 중 785종이 ‘작가와’라는 출판사명으로 나왔는데 챗GPT가 단독 저자가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저자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게 출간·판매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⁷⁾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명시가 필요하다. 이 대목은 향후 해당 도서는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도서 저작물의 권리와 책임 이슈가 쟁점이 될 경우 윤리적·법적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출판계에서의 보완책 마련과 함께 인공지능이 생산한, 혹은 생산하게 될 도서의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한편, 출판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편집·기획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출판저작물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일상에서 인공번역기 활용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내용이 최근 출간된 트렌드 보고서에 올라왔다. 출판사 한빛미디어 송경석 부장이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60퍼센트에 가까운 인력이 출판업무를 하는 일상에서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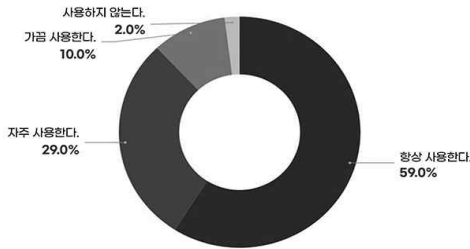
5) 챗GPT가 단독저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인간 저자와 챗GPT가 공저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함.

6) 공병훈. 「출판의 미래를 바꾸는 생성형 AI 기술」, 『KPIPA 리포트』 Vol. 08, 2023, 25면.

7) 앞의 글, 26면.

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에 나타난 응답 결과에 대한 질문은 “도서 판권 수입을 위한 시장조사 단계에서 인공지능 번역기(구글, 파파고, 딥엘, 챗GPT 등)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⁸⁾이다.

(편집자 113명 답변, 2024년 3월 조사)



해외 출판저작물에 대한 한국어 번역판권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판사 근무 담당자들은 해외에서 출간되고 있는 수많은 책 중에서 관심 갖고 검토할만한 책과 저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공번역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의 일상적 사용과 더불어 그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례로, 미국 아마존닷컴에 방문하면 해외 출판사가 작성하여 올린 각 도서에 대한 구체적인 (영문) 소개자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언론매체에 실렸던 기사 등은 물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나 서평인들의 추천 글들을 다수 볼 수 있는데, 그 자료들을 인공번역기를 통해 한국 출판사 실무 담당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외국어로 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인력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손쉽게 전문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색과 검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됨으로써 그간 적잖이 소요됐던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번역기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8) 송경석, “인공지능 번역기가 출판 시장과 저작권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K-Book Trends』, VOL.6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04. (도표는 송경석의 것).

국가의 출판시장에서 그간 자주 지적되곤 했던 ‘영세 중·소형출판사의 외국어 구사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자사 도서에 대한 해외 출판시장으로의 소개와 진출 시도 한계가 개선되어 이제는 문학을 비롯한 자국, 혹은 자사의 다양한 출판저작물을 해외로 활발히 소개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진 시대로 전화하고 있다.

송 부장은 “소규모 출판사는 예전에 1년에 1~2회 제작해 에이전시⁹⁾에 소개하는 정도로 저작권 수출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매달 출간 리스트를 정리해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초록 번역 과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절감하고 언어 장벽을 허물어 더 많은 해외 출판사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다.”¹⁰⁾고 언급하면서 일상 업무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통한 번역이 일상화되기 전엔 해외 출판시장으로 소개할 도서에 대한 외국어로의 소개자료 제작과 대외적 배포 횟수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그때그때 출판되는 도서에 대한 소개자료를 외국어로 작성·제작한 후 국내외 에이전시에 배포하거나 관심 가질만한 다양한 언어권의 수많은 현지 출판사 편집자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환경으로 출판시장 생태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통한 다양한 텍스트 번역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사전 인지와 차단이다. 따라서 번역오류로 인한 특정 도서에 대한 오해와 그를 통해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번역자료 배포·활용 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보편적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비영어권 국가에 속한 작가의 문학을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출판시장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 ‘AI 문학번역의 유용성’¹¹⁾에 대한 주제에서 강조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9) 에이전시가 출판저작물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출판사들은 그들에게 자사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도서에 대한 (영문)자료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것이 해당 업계의 일상이다.

10) 앞의 글.

11) 이구용, 「AI 문학번역의 유용성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세명대학교, 2023, 620-642면, “인공지능의 번역기능과 그를 통한 작업은 세계출판시장의 중심인 영미권으로의 진출은 물론, 번역출판의 언어권 확대를 위한 산업적 유용성이 있음...(하략)...”, 653면.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성형 AI의 역할과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계속해서 그것의 유용성과 거기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살펴 가고자 한다.

2.2 출판시장에서의 AI 활용 사례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 출판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스노우폭스북스)¹²⁾이 있다. 260쪽 분량으로 2023년 2월 22일에 공식 출간된 이 책은 총 6장(章)으로 구성돼 있다.¹³⁾ “한 권의 책이 종이에 인쇄돼 출간되기까지 수개월. 이 책은 그 모든 과정을 단 7일로 만들고 세상에 나왔다. 얼마일지 모를 저자의 원고 집필 기간과 서너 달의 역자의 번역 시간, 두 달에 이르는 에디터의 편집과 교정, 교열을 이 책의 저자, 챗GPT와 번역 AI 파파고는 기획자와 번역자의 단순 검수 기간을 더해 단 30시간으로 좁혔다.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순수한 질문만이 남는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¹⁴⁾ 이 책의 탄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출판사에서 작성하여 온라인 서점에 올

12) 챗GPT,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2023, 스노우폭스북스.

13) 제1장 ‘인연’, 제2장 ‘어떻게, 어느 선에서 만족할 것인가?’, 제3장 ‘하루를 행복하게 채우라’, 제4장 ‘인생의 변하지 않는 진실들’, 제5장 ‘당신의 목적의식은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가?’, 제6장 ‘감정을 성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14) 챗GPT, 서터스톡 AI 일러스트, AI 파파고 역,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스노우폭스북스, 2023,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7506954>. (방문일: 2024. 3. 19). 이 책 관련하여 해당 온라인 서점에 올라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추가로 인용한다, “책의 제목과 각 목차는 AI가 생성한 것이 아닌, 기획자가 개발 후 시기를 놓쳤거나, 마땅한 저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개발 수준이 기획자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기획 목록 중 하나에서 선택했다. ‘AI가 쓴 원고와 실제 저자가 쓴 원고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정보를 규합해 자연스러운 언어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외서 출간에 필수였던 번역의 과정은 AI로 완전히 넘어온 걸까?’, ‘교정과 교열은 전문가가 필요 없을 만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됐을까?’,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될 만큼의 전문성이 있는 저자보다 더 뛰어난 글을 쓸 수 있게 될까?’, ‘책은 전체의 흐름을 유지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과연 가능할까?’, ‘표지 디자인도 상품화할 만큼 정말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와 같은 궁금증에 답을 얻기 위한 작업으로 시작해 다양한 해답을 발견해가는 작업으로 마무리되었다.”

린 소개글의 일부이다. 챗GPT가 쓰고, 네이버 번역프로그램인 파파고(Papago)가 번역하고, 표지 일러스트는 이미지 전문 생성형 AI인 셔터스톡(Shutterstock AI)이 작업하였고, 글 작업부터 인쇄까지 소요된 시간은 단 7일이고, 책 제목과 목차는 기획자가 작성했으며, 챗GPT는 목차에 어울리는 글을 각각 3천 자 분량으로 생성하고, 출판사는 파파고를 이용해 2시간 동안 영어원문 135쪽 분량을 모두 번역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진행되었다.¹⁵⁾

외형상으로 보면 이 책은 인공지능의 중심적 역할을 통해 세상에 나온 것이 분명하다. 본고 작업 중에도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지만, 이 책이 탄생할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기획이고 시도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생성형 AI가 작업을 했고, 챗GPT가 저자명으로 책 표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면 챗GPT만이 유일 저자인가, 혹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질문을 남긴다. 좀 더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살펴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인간 기획자가 책의 기획과 제작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인간 기획자가 책 제목과 목차를 작성했다는 것은, 소설로 치면 작품에 대한 플롯과 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를 거의 설정해준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연구자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분명 챗GPT 단독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저작권자(rights owner)는 누구이고, 그가 생산한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윤리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저작권자는 기획과 편집작업을 한 기획편집자인지, 책을 출간한 출판사인지, 아니면 창작과 번역작업을 수행한 생성형 AI 챗GPT와 파파고인가. 인간이 아닌 ‘대상’을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 인간 창작자·생성형 AI·생성형 AI와 작

15) 류영호, 「한국 출판 시장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K-Book Trends』, VOL.65, 2023. 12.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참조. (면 수는 온라인에 업로드된 해당 자료에 표기되지 않음).

업을 진행한 기획자·제작업체(출판사) 등이 모두 그 이해 당사자 대열에 이름을 올려놓고 윤리적·법적 적용과 보호 기준을 두고 대립과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각의 당사자들이 수용할만한 대안·해결책을 두고 개인·업체·정부가 모색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 번역·창작과 법적·윤리적 쟁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의 출간 일주일 후, 이번엔 인간 저자와 챗GPT가 함께 쓴 또 다른 책이 출간되었다.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김대식 교수와 생성인공지능과의 대화』(동아시아)¹⁶⁾로, 기계와 협업한 ‘모범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이 책은 카이스트 교수이며 뇌과학자인 김대식이 챗GPT와 나눈 열두 개의 대화를 담았다. 이 책이 자기계발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챗GPT를 상대로 대화를 전개하며 답을 끌어내는 ‘저자의 기술’과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협업의 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의 프롤로그로부터 에필로그에 이르기까지 김대식은 챗GPT에게 시종일관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을 이끌어 낸다. 인간 간 대화와 소통에서 ‘기술’을 말하지만, 인간과 생성형 인공지능 간에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있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능력이 생성형 AI가 작업하는 텍스트의 완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다는 맥락에서 인간과 AI의 긴밀한 협업의 가능과 그에 따른 필요성을 역설하는 중요한 사례로서, 김대식의 작업을 통해 세상에 나온 이 책은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 지점에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갖춘 인간이 주도하는 ‘문답형 글쓰기’에서 한 가지 이슈가 제기된다. 인간과 생성형 AI의 “저자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¹⁷⁾이다. 챗GPT 등, 인간과 생성형 AI가 협업하여 생산되는 결과물에 대한 ‘저자 자격’, 혹은 ‘저자 표시’ 등에 대한 이슈가 첨예한 논쟁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¹⁸⁾

16) 김대식·챗GPT,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김대식 교수와 생성인공지능과의 대화』, 2023, 동아시아.

17) 이승환, 「생성형 AI가 출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49권 2호(통권 111호), 2023, 98면.

2024년 상반기 현재, 국내·외 출판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로, 학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논의되지 않고 있는 이슈가 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출판시장에 번역판권 도입 후 번역과정에서 AI(인공지능) 번역기 활용을 금지하는 계약조항 추가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와 대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는 챗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활용이 전 분야로의 확대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일상화돼가고 있는 환경에서, 특히 비영어권 출판계에서의 AI 인공번역기 활용에 대한 일상성 확대와 그것의 유용성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 반하는 입장이어서, 이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서 당장에는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에 대한 논쟁 가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바와 관련한 것으로, 특정 저작물의 번역판권(translation rights)을 소유한 저작권자(Proprietor)가 그것을 계약하는 상대 언어권 출판사(Publisher)와의 판권계약 진행 시 계약서상 ‘Translation(번역)’관련 조항에 인공번역기 활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출판계에 등장하였다. 동아일보는 “해외 대형출판사들이 국내 출판사들과의 최근 판권 계약에 ‘인공지능(AI) 번역기 사용 금지’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¹⁹⁾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번역가들은 오히려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역을 최소화하고 번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번역기 활용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의 의견을 내며 해당 조항 ‘추가’ 요구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본 이슈에 대한 논란이 출판계를 넘어 학계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였다. 해외 출판사에서 인공번역기 활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AI가 수행하지 못하거나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문의 오역이나 왜곡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그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번역자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번역자들은 인공번역기가 오히려 오역을 줄이

18) 위의 글, 같은 면 참조.

19) 이호재, “해외 대형 출판사들, ‘AI 번역금지’ 국내 출판사에 계약 요구”, 『동아일보』, 2024. 1. 22(방문일: 2024. 6. 3.)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이호재 기자는 출판평론가 표정훈이 “출판계가 AI 사용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번역가와 AI번역기가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²⁰⁾는 내용을 기사에 덧붙여 전하였다.

관련하여, 국내출판사(저작권자) A가 한국문학을 해외출판사로 수출하면서 관련 수출 계약서 작성 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을 연구자가 입수하여 하나의 예로 인용한다.²¹⁾

The translation may not be cre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machine translation, or other similar technologies and/or automated translation processes.

번역은 인공지능 기술, 기계번역, 또는 기타 유사한 기술 및/혹은 자동화된 번역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 (번역은 연구자의 것.)

창작자 입장에서, 혹은 창작자 권리·권익을 대리하는 출판사나 에이전시(Agency)의 입장에서 위 인용한 내용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번역자에게, 혹은 번역판권을 구매하는 상대 언어권 출판사에 요구하는 데에는 합당한 근거는 있다. 저자의 ‘고유한 목소리’와 그만의 개성 있는 문체가 유능한 인간 번역자를 통해 시종일관 잘 유지되는 가운데 ‘도착어 권’ 현지 독자들에게 잘 어필하도록 번역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자 상식인 전제’가 내재된 암묵적인 요구 사항이다. 이런 일부의 움직임은 인공번역기를 통해 번역작업이 수행될 경우 그 과정에서 원작의 예술적·문화적 이미지와 정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손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온 사전 차단책 내지는 대안책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 앞의 글.
21) 특정 타이틀, 계약조건, 그리고 국내 저작권자와 해외출판사 명은 공유할 수 없는 대외비로, 민감한 사안일 수가 있어 출처는 밝히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지닌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그런 제안이나 요구가 대체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우선, 인공번역기의 활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인간 번역자가 더 나은 번역 결과물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번역작업 시 비교·참고 수준으로 인공번역기와의 협업을 병행하는 것까지 제한과 규제를 하는 것은 지나친 ‘업무 규제와 관여’라는 입장이다. 물론, 앞의 인용 부분이 번역작업 시 저작물 텍스트 전체를 인공번역기를 통한 번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거나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조건은 창작과 번역에 대한 보호 우선 차원에서 고려되어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트렌디한 현재의 흐름과 출판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할 때에는 상호간 조화롭지 않은 내용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출판산업계 내부에서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학계에서도 관련한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엔 ‘번역관련 계약서’에 AI관련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넣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제시된 내용의 예²²⁾이다.

22) 앞의 사정과 같은 이유로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Artificial Intelligence

Proprietor expressly prohibits Publisher from using the Work in any manner for purposes of train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o generate tex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echnologies that are capable of generating works in the same style or genre as the Work. The Author reserves all rights to license uses of the Work for generative AI training and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 language models. Publisher will use best efforts to include a limitation in any sublicense of the Work prohibiting the use of the Work for training and developing generative AI technologies.

인공지능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저작물과 동일한 스타일 또는 장르의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저작권자는 생성형 AI 학습 및 기계 학습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한 저작물 사용 라이선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출판사는 저작물의 모든 하위 라이선스에 저작물의 학습 및 생성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저작물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번역과 밑줄 강조는 연구자의 것임.)

위 내용은 앞서 인용·언급한 요구사항과는 맥을 달리한다. 앞선 요구안은 번역 시 인공지능 번역기나 해당 프로세스를 활용한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 인용된 내용의 핵심은 “텍스트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는 부분처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이나 모델 개발을 위해 계약진행을 하는 저작물의 텍스트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시나리오 작가 등을 포함한 작가협회 등에서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으로, 창작자나

그들의 저작물 관리를 대리하는 업체나 출판사에서의 이에 대한 요구는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선 요구가 ‘번역’에 관한 것이라면 이 요구는 창작자와 그들이 작업한 저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방어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보다 현실적이며 기본적으로 창작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면의 절실함도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는 향후 국내 창작자군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창작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학술 연구 또한 병행·연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3 AI 창작·번역과 법적·윤리적 쟁점

디지털 기술의 진화·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생성형 AI를 통한 창작·번역은 ‘용이성과 저비용’이라는 맥락에서 전통적인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창작·번역에서 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에게는 생성형 AI의 역할이 긍정적 요소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피하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수용하게 되는 시대적 현상이므로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 이후 그것의 활용이 개인의 일상과 출판산업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AI를 통해 생산된 저작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이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²³⁾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해당 저작물에 대한 대중 사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그를 통해 공적인 이로움을 널리 제공한다는 가치 또한 함께 지닌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생성형 AI의 긍정적 요소와 달리, 생성형 AI를 통한 불법적인 개작이나 복제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생산·유통의 가능성과

23) 김기태,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의 법적·윤리적 쟁점과 시사점」, 『K-Book Trend s』, VOL.64, 2023. 11. 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본 글 원문에 면수가 명시되지 않음).

위험성은 물론이고, AI가 창작한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부여·소유와 거기서 파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 나아가 인간이 창작한 원작에 대한 무분별한 기계번역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법적·윤리적 쟁점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부정적 측면의 요소도 동시에 쟁점화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첨예하고 민감한 현실적 문제로서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바로 이런 현실을 배경에 두고 있는 생성형 AI의 역할을 둘러싼 이슈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 활발한 논쟁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이슈에 대한 대응·대처 방안, 혹은 시대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해 산업·학계 전문가들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보완·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김기태는 “저작권법상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언급하면서, 이 판례로 보아 “창작성의 정도를 높게 요구하지는 않는 입장”이라는 의견 피력에 이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 ‘창작물’에 대한 또 다른 판례 하나를 더 들고 있다.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창작성 표현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⁴⁾

본 절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과 번역에 대한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쟁점을 살피고, 그를 통해 현안에 직면한 학계 연구자와 산업계 종사자에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향후 비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4) 앞의 글 인용 및 참조.

2.2에서 생성형 AI를 통해 기획·출간된 저작물로 자기계발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에 대한 사례를 살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책의 제목과 목차는 인간 기획자가 작업했고, 목차에 구성된 6개의 장과 각 장에 구성된 세부 내용은 각각에 어울리는 글로 챗GPT에 명령한 결과값으로 생성되었다. 한국 출판사 스노우폭스북스는 파파고를 이용해 2시간에 걸쳐 영어원문 135쪽 분량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저자확보·원고청탁·관련계약 등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혹은 해외저작물 도입 시 진행되는 과정인 관련계약과 역자 확보, 그리고 번역료에 대한 비용 또한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거짓말(hallucination)을 할지언정 모른다는 말은 할 줄 모르는’ 생성형 AI의 특성이 불러올 수 있는 저작물 내용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 부분은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 기획자나 편집자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역할을 했다면 창작자명으로 인간의 이름이 병기되지 않고, 이를테면 챗GPT 등 ‘인공지능’이라는 이름만을 ‘단독 저자’로 명기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업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거쳐 현재보다는 진화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일례로, 인공지능 AI가 창작이나 저술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개입하여 동반 작업을 한 만큼, 최소한 인간이 공저자로 병기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래서 출판등록 시에 저작자(저자) 명 또한 그렇게 병기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남긴다. 그렇게 될 때 추후 어떤 특정 저작물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윤리적·법적 책임 소지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따라 생산된 결과값이 출처를 알 수 없이 혼재하는 수많은 데이터 베이스에서 나온 어떤 특정 문학작품이 나중에 윤리적 문제를 넘어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인공지능에게는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특정 인간 공저자를 병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을 출간하는 출판사 ‘편집부’, 혹은 ‘출판사’를 공저자로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나가는 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른 속도로 인간의 평범한 일상을 지나 산업계 전반에 걸쳐 촘촘히 스며드는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나올 정도로 그 파급력과 그것이 닿는 영역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이다. 인공지능의 기세와 그 영향력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에 대한 전망에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의 ‘짜페’로 등장한다. 글로벌 출판시장도 그중 한 영역으로 인공지능의 기능을 활용하며 그것의 유용성을 수용하는 가운데 일상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이미 작가가 되어 창작자 역할을 해가고 있고, 비영어권에서는 번역가가 되어 그간 인간이 해온 번역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환경에서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출판 생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그것의 수용 양상을 점검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살폈다. 먼저, 동반자로서의 생성형 AI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출판저작물 수출·입 담당 출판 관계자들이 인공번역기 도움으로 영미·유럽권역에서 출간된 다양한 타이틀을 리서치하고 각 타이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현지 출판시장에서의 다양한 피드백 등을 신속히 리뷰함으로써 한국 출판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해외 타이틀 확보에 인공번역기에 유용성이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살필 수 있었다.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한국 도서를 해외로 소개하기 위한 영문자료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인공번역기의 도움이 유효하다는 것을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은 창작·편집·제작·출판에서도 그 유용성이 발휘된 사례 또한 점검하였다. 명령된 목차에 어울리는 내용의 결괏값을 내어 한 권의 단행본 원고가 나오고, 출판하고자 하는 단행본의 편집에서 더 나아가 표지 작업까지 거뜬히 수행해내는 역량까지 인공지능이 발휘하고 있다는 현황도 실사례를 통해 살폈다. 이로써 생성형

AI의 역할과 기능은 이미 인간 창작자·번역자·출판인 역할의 상당한 영역까지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까지 살필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 우수도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출판저작물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유용성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부정적 측면도 비중 있게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과 번역물이 출처가 불분명한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물론 해당 저작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살필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공지능을 단독 저자(혹은 창작자)로 명기하기보다는 기획자(프롬프트 엔지니어), 편집자, 혹은 출판인이 공저자로 병기·출판등록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 협력·논의·연구하여 끊임없이 진화·발전하고 있는 창작자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일상화 국면에 처한 국내외 출판시장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과 쟁점을 신속히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인공지능을 둘러싼 인간 창작자와 산업계가 갈등과 대립이라는 견제구조가 아닌 이해와 협력의 동반자로 동행해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창작자에게는 물론 출판계에 시의성 있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찰력 제공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다음 기회에는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번역 저작물을 둘러싸고 국내외 출판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AI Adoption Aspects in the Publishing Market

Lee, Koo-yong(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henomena and issues that are emerging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shing market due to changes in the publishing content eco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generative AI.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the adoption aspects of AI in the publishing market as a whole, as well as writing and translation through generative AI, and suggests answers to the phenomena derived from them. To do so, it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shing market through specific cases and examines the usefulness and problems in the process, suggesting alternatives and visions for the future. While there are industrial effects of time and cost savings in the writing and translation through AI, the inevitable task of establishing a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reators is emerging, thus raising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and the need for responses to creative and translated works. Ultimately, by quickly analyzing and examining the current issues fac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shing markets in relation to generative AI, and presenting timely responses and visions, this study provides us with timely insights for those in the Korean literary and publishing industry to have a competition power in the global publishing market in order to promote Korean books including

Korean literature abroad.

Key words : Global publishing market,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I writing and translation, AI in the publishing market, Korean literature export, Korean publishing, ChatGPT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대식·챗GPT,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김대식 교수와 생성인공지능과의 대화』, 2023, 동아시아.
- 박주택 외, 『인공지능과 문학의 미래』,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0.
- 챗GPT,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2023, 스노우폭스북스.

■ 논문

- 박경수, 「인공지능(AI)문학의 미래와 포스트 휴머니즘」, 『한중인문학연구』. 제60집, 한중인문학회, 2018.
- 신지선·김은미. (2017).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 연구』, 제18권 5호, 2017, 91-110면.
- 이구용, 「AI 문학번역의 유용성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세명대학교, 2023, 620-642면.
- 이승환, 「생성형 AI가 출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49권 2호(통권 111호), 2023, 83-109면.
- 한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출판생태학의 저작권 인식」, 『인문콘텐츠』 제71호, 197-222면.

■ 기타 자료

- 공병훈. 「출판의 미래를 바꾸는 생성형 AI 기술」, 『KPIPA 리포트』 Vol. 08, 2023, 25면.
- 김기태, 「인공지능(AI) 활용 창작물의 법적·윤리적 쟁점과 시사점」, 『K-Book Trends』, VOL.64, 2023. 11. 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김지현, 「AI는 인간과 협업하는 능동적 파트너」, 『주간동아』 1436호, 2024, 22-23면.
- 박지영,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요?」, 한겨레, 2024. 02. 13.(최종방문일: 2024. 02. 14)
- 류영호, 「한국 출판 시장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K-Book Trends』, VOL.65, 2023. 12.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송경석, 「인공지능 번역기가 출판 시장과 저작권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K-Book Trends』, VOL.6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04.
- 이호수, 류영호, 공병훈, 『KPIPA 리포트: 생성형 AI시대, 콘텐츠 생태계 변화와 출판계

대응』, Vol. 0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이호재, “해외 대형 출판사들, ‘AI 번역금지’ 국내 출판사에 계약 요구”, 『동아일보』, 2024. 1. 22(방문일: 2024. 6. 3.)

임인택, ‘해리포터’ 구글 번역했더니 “정확도 40% 미만...복합적 오류, 한겨레, 2023. 5. 26(최종방문일: 2024. 3. 4)

임지선, AI 데이터 우물에 ‘독’푸는 교수...”저작물 도둑질, 창작가 삶 뺏어:, 한겨레, 2024. 2. 15(최종방문일: 2024. 2. 15)